

2015

여름 제61권 2호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네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NEPAL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대한성서공회는 2015년 현재 세계 146개 성서교회들로 구성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 출판, 반포, 활용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성경 운동 네트워크로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BIBLE SOCIETY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을 위하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첫 번역 성경을 기증 받은 미얀마 하와나가 부족 사람들



성서교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 성서교회들을 위하여 성경의 제작과 출판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증 받은 성경을 읽고 있는 쿠바 사람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아프리카와 동남아, 중남미의 많은 성서교회들은 문맹퇴치를 위한 문자교실 프로그램의 운용과 에이즈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웃들이 성경을 통해서 글을 깨우치고 복음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제작 지원하고, 에이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자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

교회와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외 지구촌 이웃들에게 귀중한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CONTENTS

- 02 ● 성서 사업 보고
제123회 정기이사회 성서 사업 보고
- 04 ● 커버스토리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네팔
- 네팔에 성경을 보냅니다!
- 08 ● 후원교회
우리 교회는 쿠바에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을 보냅니다! - 창조교회
우리 교회는 콩고민주공화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교문교회
- 12 ● 성경 나눔 이야기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성경 1,000부를 기증하다
- 하나교회
- 14 ● 미자립성서교회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52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16 ● 말씀을 만나다
은매화(화석류, myrtle)
- 18 ● 성서교회 운동을 위한 기도
"대한성서교회 사역, 한국교회와 함께 합니다."
- 20 ● International Update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성경, 부르키나파소의 희망입니다.
- 22 ● KBS 단신
제12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2015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다.
콩고민주공화국성서교회 총무와 미얀마성서교회 총무, 후원처를 방문하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2-2103-8861~3
· 편집문의 : 02-2103-8847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1~3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5년 6월 30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강수현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찬성회원(후원가정,평생회원) 회비 완납자 명단은 대한성서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유통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제123회 정기이사회 성서 사업 보고



권익현 사장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제5회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대한성서공회는 개최국 성서공회로서 과거 대한성서공회의 자립과 성장 그리고 성서출판과 제작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성서공회들의 성서 보급을 지원해 온 경험과 비전을 소개하였습니다. 많은 회의 참석자들이 특히 대한성서공회가 자립과 성장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국내와 세계 성서사업에 기여해 온 전략적인 방향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마이클 페로 총무는 이번 출판회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대한성서공회의 성서출판 및 제작 서비스가 세계 성서공회들의 성서 반포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성서출판 책임자인 멜빌 리베라는 남미의 에콰도르를 대한성서공회 성서 기증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에콰도르성서공회가 문을 닫았을 때 대한성서공회는 그곳에서 성서 보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성서를 전적으로 기증해주었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에콰도르성서공회는 현재 미주 지

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성서공회 중의 하나로 발전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성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바에, 적은 수량이지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올 상반기에도 세계 성서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지원하는 재정적 인적 지원과는 별도로, 금년에도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성서공회들에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아프리카 지역의 가나 보츠와나 시에라리온 우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남미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얀마 솔로몬제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유럽 중동 지역의 라트비아 불가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쿠웨이트 폴란드 헝가리 등 총 26개국에 143,955부의 성경을 제작 기증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명성교회(예장[통

합], 김삼환 목사)에서 미얀마의 쿠미 친(Khumi Chin)어 첫 번역 성경 3,100부의 기증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성교회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쿠미 친’과 ‘파오’부족을 위하여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비용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하였습니다(128,000,000원). 또한 2월 24일에는 본 공회 후원회원인 정경숙 집사(예장[통합], 광주뽕엘교회)의 후원으로 캄보디아에 크메르어 성경 2,050부와 코스타리카에 스페인어 성경 4,000부를 기증하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26,000,000원). 4월 6일에는 창조교회(예장[통합], 홍기영 목사)에서 쿠바에 보내는 스페인어 성경 5,200부 제작을 위해 후원금(26,000,000원)을 기탁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사랑의교회(예장[합동], 오정현 목사)에서 ‘해외 성경 보내기’ 후원금(50,000,000원)을 보내왔습니다. 이 후원금으로 라오스 코트디부아르 파테말라 등에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교회와 찬성회원들께서 해외 성경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억 5천 2백여만 원(14.6%)이 증가한 약 12억 원이 답지하였습니다. 전 세계로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주시는 교회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성경 보급 현장을 둘러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절실하게 성경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많은데 보급할 성경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서공회 창고에 한 권의 성경도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 기간 동안 각 성서공회 대표들로부터 각 성서공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서 보급의 어려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동유럽 지역에서, 성경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억압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보급할 성경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서공회들이 본 공회에 더 많은 성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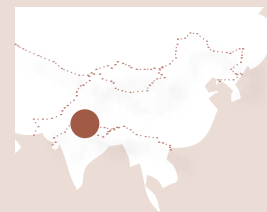
이렇게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성서공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공회에서는 2020년까지 미자립성서공회 성서 기증 사업 250만 불과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지원 사업 50만 불을 포함한 총 300만 불을 연간 목표로 모금 활동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서사업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네팔
- 네팔에 성경을 보냅시다!

위치

중국과 인도
사이의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 내륙
(출처: 외교부)



인구

27,900,000 여 명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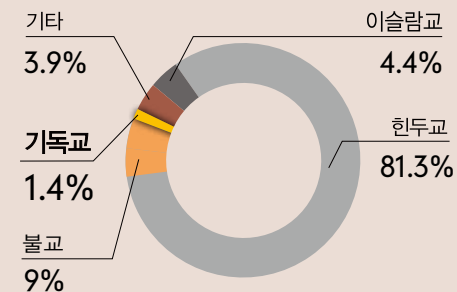


언어

네팔어



종교



네팔 사람들의 삶을 휩쓸어간 지진

지난 4월 25일, 네팔은 수도 카트만두 북서쪽을 강타한 강도 7.8의 대지진으로 큰 슬픔과 공포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 5월 12일 강도 7.3의 2차 지진까지 발생하여 현재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 9천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네팔 사람들은 차가운 바닥에 세워진 임시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기의 공급이 끊기고, 수도관이 파괴되어 오염된 물을 공급받아 각종 질병이 더해져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함과 계속되는 여진 그리고 또 다시 지진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네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나가는 소녀
사진 출처: @Reuters Danish Siddiqui



지진으로 성경이 파손된 네팔성서공회 사무실



계속되는 절망 속에 힘을 잃어가는 네팔 교회

UN지정 최빈국 중의 하나인 네팔은 주요 산업이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경지가 국토의 17%에 불과하며, 농경지의 90% 이상을 봉건적 지주계급이 독점하여 국민 대다수는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1/3은 일찍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네팔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된다. 극렬한 힌두교도들의 공격 또한 늘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나 도로와 철도가 붕괴되었고, 예상

보다 일찍 시작된 우기로 구호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보낸 구호물품이 피해 지역에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구호물자가 닿기 어려운 지역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네팔성서공회에 따르면 카트만두의 어떤 한 교회에서는 교회 외벽이 무너져 최소 40여 명의 성도들이 사망했다고 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90퍼센트에 이르는 집들과 교회 건물들이 붕괴되었다. 네팔성서공회에서도 성서회관에 보관하고 있던 성경 대부분이 손상되어 현재 보급할 수 있는 성경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원의 소망을 향한 네팔의 움직임

상처받은 네팔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지진으로 네팔의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성경이 유실되어 읽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네팔성서공회는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음식, 담요, 의약품 등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교회의 잃어버리거나 손상된 성경을 교체해주고, 성경전서와 신약전서를 비롯한 소책자를 전달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진으로 인해 겪은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절망 속에 있는 네팔 사람들에게 쪽복음 성경을 전달할 예정이다.

네팔성서공회 총무는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교회를 재건해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잃은 교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에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성경을 요청하였다.

현재 본 공회는 네팔을 위한 성경 기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모든 교단이 네팔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네팔어 성경을 보고 있다.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속에서 괴로워 하고 있는 네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 네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기다리고 있는 네팔 사람들

후원문의

네팔에 보내는 컨테이너 한 대에 성경 10,000부가 들어갑니다. **15만 원을 현금하시면 10권의 성경, 3만 원을 현금하시면 2권의 성경**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져, 절망으로 덮여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에 소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080 - 374 - 3061(수신자 부담), 02 - 2103 - 8861~3

우리 교회는 **쿠바에**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을 보냅니다! – **창조교회**



쿠바 성경 기증 후원금 전달 (본 공회 권의현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 과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맨 오른쪽] 및 선교위원들)

지난 4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창조교회의 홍기영 담임목사와 선교위원장 등이 본 공회를 방문하여 쿠바에 보내는 스페인어 성경 5,200부 제작을 위해 헌금을 기탁하였다. 창조교회에서는 지난 2015년 3월 1일부터 쿠바에 성경을 보내기 위하여 한 달여간 모금을 하였다.

쿠바성서위원회 총무 알라인 몬파노 목사는 최근 서신을 통해 “쿠바에 100만 부의 성경 보내기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대한성서공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수고와 후원에 대해 쿠바 교회와 쿠바 성서위원회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로 많은 쿠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교회가 힘있게 되고,

쿠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쿠바는 생명의 말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입니다. 수많은 쿠바 사람들이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였다.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는 쿠바에 성경을 보내기 위해 헌금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님으로 입국하셨는데, 그로부터 꼭 130년이 지난 2015년 4월 5일 부활절에 창조교회에서 쿠바에 성경

을 보내게 된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또한 이번에 쿠바에 성경을 보내기 위해서 별도로 헌금봉투를 만들지 않고 자원하여 헌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5,200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낼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라고 전하였다. 이번에 쿠바에 성경을 보내는 창조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 14명은 쿠바로 출발하여 쿠바성서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고 쿠바 현장을 돌아 보았다.



쿠바에 보내는 〈큰글자 스페인어〉 성경



성경을 읽고 있는 쿠바 어린이들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쿠바 교회 성도들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쿠바에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하여 준 창조교회에 “미자립성서공회들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 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 권의 가치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지만, 이들은 성경 한 권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창조교회에서 쿠바에 성경을 보내기 위해 후원해 주신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이번에 창조교회의 후원으로 기증하게 되는 쿠바 스페인어 성경 5,200부는 본 공회에서 제작하여 완료 후에는 컨테이너에 실어 쿠바로 보내는 기증식을 가질 예정이다. 추후 이 성경들은 쿠바성서위원회를 통하여 쿠바 교회와 새롭게 신앙을 접하게 된 성도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우리 교회는 **콩고민주공화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교문교회

지난 5월 19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문교회(전승문 목사)의 최대원 원로목사가 본 공회에 방문하여 콩고민주공화국에 성경을 제작하여 보낼 수 있도록 헌금(1천만 원)을 기탁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 성경 기증 후원금 전달 <본 공회 호재민 부총무[왼쪽], 교문교회 최대원 목사[오른쪽]>

본 공회는 지난 호 “오랜 내전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콩고민주공화국”(〈성서한국〉 2015년 봄, 4-7페이지 참고)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의 열악한 상황과 성경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2010년부터 오랜 기간 지속된 내전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며,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와 지역 교회 및 공동체에서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원 원로목사는 본 공회의 모금 광고를 보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성경 보급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를 은퇴하며 성도들이 말씀을 위한 사역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기탁한 헌금으로 후원할 곳을 알아보던 중, 교회에 순회하여 성서사업보고를 하는 대한성서공회 자원봉사 장로를 통해 성경보급의 필요성에 대

해 들었다. 이후 콩고민주공화국에 성경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후원하기로 결심하였다.

최대원 원로목사가 섬기는 교문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다. 3백 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 각 교회 건축 후원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선교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교문교회의 최대원 목사의 후원으로 기증하게 되는 성경은 본 공회에서 제작되어 컨테이너에 실려 콩고민주공화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추후 이 성경들은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를 통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

콩고민주공화국은 성경을 통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 공회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302부의 성경을 콩고민주공화국에 기증할 예정이다.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 총무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성경을 받은 콩고민주공화국의 모습을 소개했다.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 크리스토프 콩고 총무

“콩고민주공화국의 어느 한 지역에는 1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아내를 한 명 더 두고자 했고, 그 지역의 목사들은 그에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권고의 말을 해야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그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나마 있던 성경 한 권마저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 목사들은 고민 끝에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편지를 썼고, 우리는 즉시 기증 받은 성경을 한 권씩 각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후 성경을 기증 받은 목사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의 바르지 못한 행실에 거침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기증해주시는 성경은 한 영혼뿐만 아니라 한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성경을 후원해주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콩고민주공화국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분책 성경



성경을 읽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성경 1,000부를 기증하다 - 하나교회

지난 4월 19일, 본 공회에서는 하나원(경기도 안성)의 하나교회(황문규 목사)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성경 1,000부를 기증하였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약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머무르는 곳이다.

본 공회에서 기증하는 성경을 받게 되는 하나교회 성도들은 평생 처음으로 개인 소유의 성경을 갖게 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문서를 통해 사상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북한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경책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북을 결심한 한 이탈주민은 성경을 들고 “저는 이곳에 와서 성경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 성경책을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부모님이 절실히 생각났습니다. 성경을 받은 그 순간은 단순히 ‘좋다’는 감정을 넘어 평생을 꿈꿔왔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이탈주민은 “성경은 저희에게 희망이자 생명이며 미래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며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습니다. 매일 매일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꼭 읽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하나교회 황문규牧사는 “한국교회 후원

자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보내 주신 이 성경을 이탈주민들에게 직접 전해드리며 그 감동을 직접 보고 듣는 저로서는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영적으로 중요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살리는 길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길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본 공회는 1990년부터 북한의 선교의 문이 열릴 경우, 북한 동포들에게 성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북한 동포에 100만 부 성경 보내기 운동’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로 하고, 2013년에 2,000부, 2014년에 6,300부(단편 성서 포함)에 이어 올해 1,000부를 포함하여 하나교회에 총 9,300여 부의 성서를 기증하였다. 북한에 성경 보급의 기회가 열릴 때를 기도하며 본 공회가 북한 동포들을 위한 100만 부의 성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수신자부담], 02-2103-8861~3)

〈북한 이탈주민의 편지〉



1997년 처음 중국에 갔다가 공안에 잡힌 저는 용정감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조사를 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말하는 그 청년을 보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중국으로 탈북하였고,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문득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 선으로 팔려 농촌에서 살며 딸을 낳았는데, 딸이 돌이 지나면서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앓고 있는 딸을 안고 병원에도 수없이 가보았고 또 절간에 가서 무릎이 닳도록 절도 해보았고, 종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보았지만 딸의 병이 낫기는 고사하고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그때 중국의 시택 삼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으면 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말을 모르는 저는 삼촌이 전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열심히 믿으면 딸의 병이 나을 수 있고, 또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말로 된 성경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3년, 중국에 방문한 한국 선교사님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배우며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고, 점점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안전문제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향을 떠난 탈북자들이었고, 신분증이 없어 언제 공안에게 잡힐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말씀을 배우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한국행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가족을 뒤에 두고 자식과 헤어지자니 가슴은 아팠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잘 도착하여 이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헤어진 가족과 다시 상봉하고 함께 모일 그 날을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유럽 중동 지역(17개국)

Europe & Middle East

- | | | |
|---------|-----------|----------|
| 1. 걸프 | 7. 불가리아 | 13. 이스라엘 |
| 2. 그리스 | 8. 슬로바키아 | 14. 이집트 |
| 3. 라트비아 | 9. 슬로베니아 | 15. 터키 |
| 4. 레바논 | 10. 알제리 | 16. 폴란드 |
| 5. 루마니아 | 11. 에스토니아 | 17. 헝가리 |
| 6. 모로코 | 12. 요르단 | |



걸프



에스토니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6개국)

Asia & The Pacific

- | | |
|---------|---------|
| 1. 남태평양 | 4. 미얀마 |
| 2. 네팔 | 5. 파키스탄 |
| 3. 캄보디아 | 6. 라오스 |



캄보디아



미얀마

여러분의 후원으로
52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아프리카 지역(19개국)

Africa

- | | | |
|---------|------------|-------------|
| 1. 가나 | 7. 시에라리온 | 13. 콩고민주공화국 |
| 2. 감비아 | 8. 에리트리아 | 14. 남수단 |
| 3. 기니 | 9. 우간다 | 15. 에티오피아 |
| 4. 나미비아 | 10. 짐바브웨 | 16. 스와질랜드 |
| 5. 보츠와나 | 11. 케냐 | 17. 앙골라 |
| 6. 모잠비크 | 12. 코트디부아르 | 18. 카메룬 |
| | | 19. 탄자니아 |



모잠비크



앙골라

중남미 지역(10개국)

Central & South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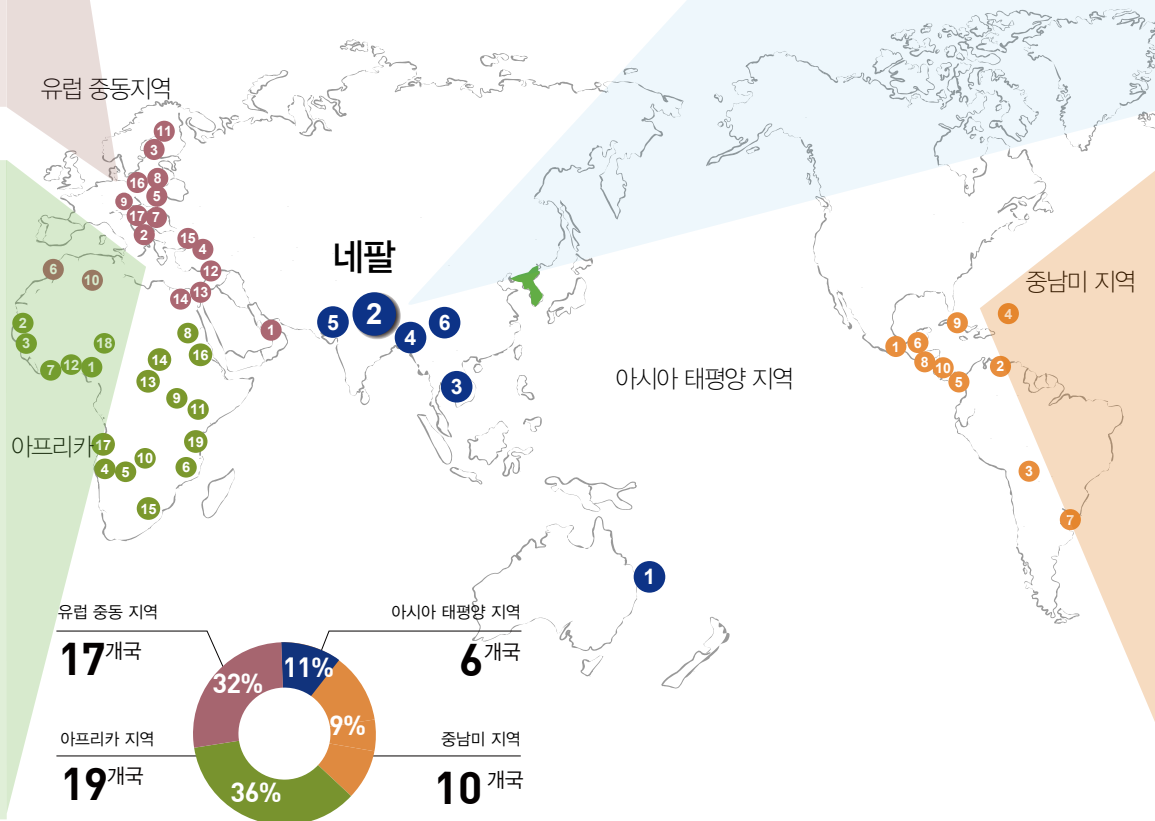
- | | |
|----------|------------|
| 1. 과테말라 | 6. 온두라스 |
| 2. 베네수엘라 | 7. 우루과이 |
| 3. 볼리비아 | 8. 코스타리카 |
| 4. 서인도제도 | 9. 쿠바성서위원회 |
| 5. 에콰도르 | 10. 파나마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은매화 (화석류, myrtle)

▶ 관련구절

하다스(*hadas*) 느 8:15; 사 41:19; 55:13; 습 1:8, 10-11

▶ 이름에 대한 논의

은매화(*myrtle*; *myrtus communis*)는 지금까지 북아프리카뿐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산지와 중동 전체에 걸쳐서 발견된다. 종말론적 본문인 이사야 41장 19절에서 그 나무는 레바논개잎갈나무, 아카시아나무, 올리브나무와 함께 열거되어 있다(또한 이사야 55장 13절을 보라). 또한 새 시대에 이런 녹색 나무들이 광야의 가시덤불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랍어 ‘아스’(*as*)와 아카드어 ‘아수’(*asu*)는 히브리어 단어 ‘하다스’(*hadas*)와 동족어이다. 은매화의 잎과 꽃은 결혼식에서 사용되며 의약품으로도 사용된다. 그 나무는 가구와 절을 때 사용하는 지팡이를 만들 때 사용된다. 나무껍질과 뿌리는 타닌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까지 러시아와 터키에서 무두질한 가죽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 모양

은매화는 향기로운 잎을 가진 상록수이며, 보통 2-3미터 높이로 자란다. 짙은 녹색 잎과 예쁜 흰 꽃과 달콤한 냄새가 나는 연푸른색의 검은 장과¹⁾를 갖고 있다.

▶ 특별한 의미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는 은매화와 다른 나무의 가지들이 초막절의 초막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고 말하며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러한 관습을 지킨다. 이사야서 본문은 은매화를 회복과 좋은 상태의 때와 관련짓는다. 스가랴가 그의 환상에서 “은매화들 사이에” 말과 그 말을 탄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구절에 나오는 정관사가 스가랴와 그의 독자들이 알았던 특정한 장소를 가리킨다 할지라도, 그는 신성한 장소와 하나님의 임재 장소, 또는 ‘천국으로 가는 통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주석가들은 스가랴의 환상에 나오는 은매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 은매화들이 골짜기이든지 협곡이든지 땅에서 움푹 꺼진 곳에서 자라는 것에 주목하라. 그것은 몇몇 주석가들의 제안과 같이 바빌로니아 유배와 같은 국가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상징일 수 있다.

은매화의 히브리어 이름은 남자들(앗사) 뿐만 아니라 여자들(하닷사; 에스더 2장 7절을 보라)의 개인 이름으로 사용된다.

▶ 번역

은매화는 전 세계에 적어도 3000종이 있으며 구아바, 유칼립투스류(*eucalyptus*), 정향나무를 포함하는 거대한 도금양과

(*myrtaceae*)의 하나이다. 하지만, 은매화와 매우 가까운 종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 언어에서 음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의 시적인 구절에서 ‘하다스’(*hadas*)의 번역은 번역자가 그 구절의 목록에 나오는 다른 나무들의 이름을 문자적인 대응어로 사용하는지 또는 음역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어떻게 번역할지가 결정된다. 만약 은매화나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느헤미야서에서는 음역을 추천한다. 스가랴서 저자가 은매화의 중요한 특징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스가랴서에서는 적당한 서술적인 대응어를 찾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음역을 하거나 ‘관목들’, 또는 ‘작은, 잎이 달린 나무들’과 같은 일반적인 어구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by Robert Koops (UBS, 2012) 중에서(번역: 권성달)



은매화 꽃



은매화 가지

[역자주] 장과(漿果): 감, 귤, 포도, 토마토 등의 열매와 같이 과육과 액즙이 많고 속에 씨가 들어 있는 과실.



“대한성서공회 사역, 한국교회와 함께 합니다.”

김중곤 장로

홍보진흥본부 문서 선교 자원봉사자

올해 광주광역시시의 성경 기증 사역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끝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해외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들을 만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교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구촌교회(예장[합동], 선계명 목사)의 고등학교 2학년 송경호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꾸는 송 군은 그동안 불우이웃 혹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곳에 기부하기 위해 모아둔 용돈으로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해외의 성경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벳돈으로 받은 새 지폐와 몇 달 동안 모은 용돈을 현금하고 기뻐하는 송 군의 모습을 보며 기특하고 아름다운 신앙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 100만 원을 후원하여 주시고,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송정중앙교회(예장[합동], 박덕기 목사) 등 많은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전국의 교회와 후원자님들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지구촌교회, 송경호 학생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성서공회는 에이즈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분주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각종 사회적 폭력, 범죄로 인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에 온두라스성서공회는 청소년층 및 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서공회의 사역과 직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걸프 지역(쿠웨이트, 바레인 외)



걸프 지역 성서공회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워크숍을 열고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온 이주 노동자들을 위하여 각국의 언어로 된 성경을 반포하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 성서공회의 사역을 통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주 노동자들 및 기독교인들이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성경, 부르키나파소의 희망입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2015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에 참석한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 드러만 안키네 총무를 만나 성경을 기증받은 부르키나파소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부르키나파소의 전체 인구 중 30%는 기독교인이며 60%는 무슬림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는 번역, 보급 프로젝트와 더불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자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4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활용하여 문자교실을 진행하며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알려주

고 이를 통해 글을 깨우친 사람들은 성경을 읽게 된다.

또한 본 공회에서 기증한 성경을 병원 등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드러만 안키네 총무는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해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성경을 보급하며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 안키네 총무



성경을 기증 받고 기뻐하는 부르키나파소 사람들



성경을 읽고 있는 부르키나파소 사람들

한 권의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 여성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가 병원에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을 때에 저희는 매우 아픈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우리가 전달한 성경을 받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구원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그 여성은 자신의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사에게 찾아가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그 여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성은 죽기 전 기증받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성경을 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 드러만 안키네 총무(왼쪽)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이 읽는 성경



제12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제123회 본 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본 공회 제123회 정기이사회가 2015년 5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이윤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무)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대표로 김웅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우영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우창준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규동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이정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가 선임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이정익 목사, 김경원 목사, 이용호 목사, 이만영 장로, 박철영 장로가, 감사로는 송영훈 장로가 선임되었다.

이어 안건으로는 교단대표로 김상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이사 선임이 있었다. 그리고 신 임원으로 이사장에 이정익 목사, 부이사장에 손인웅 목사, 서기에 이용호 목사, 회계에 이선균 목사, 실행위원에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김현배 목사, 정하봉 목사, 우창준 목사, 한규동 목사가 선임되었다.🌐



제123회 본 공회 정기이사회에서 성서 사업 보고를 하는 권익현 사장

2015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다.



‘2015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United Bible Societies Publishers Convention)’가 2015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다. 전 세계 86개 성서공회에서 2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는 지난 2010년도 세계총회에 이어 대한성서공회가 두 번째 개최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성경 콘텐츠 생산”이라는 주제로 시대의 방향성에 따라 성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출판하고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며 성경 콘텐츠 개발을 고민하고, 서로의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활자로 제작되는 성경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성경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5년 5월 4일, 이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마이클 페로(Michael Perreau) 총무는 “대한성서공회는 한국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200여 개국을 위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서 제작 시설이 세계의 성서공회들을 섬기는 데 제공되고 있습니다. 성서반포를 위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대한성서공회가 특히 큰 힘이 되고 있으며, 특별히 아프리카의 성서 반포에 있어서 중추적인 파트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본 공회는 개최국 성서공회로서 성경 콘텐츠 개발과 출판 및 제작 분야를 망라하는 통합 서비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바이블코리아와 용인에 위치한 성경 창고인 반포센터를 방문하여 본 공회의 성경 출판, 제작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마이클 페로 총무(왼쪽), 출판 총책임자 멜빈 리베라(오른쪽)



2015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의 참석자들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 총무와 미얀마성서공회 총무, 후원처를 방문하다.



전국장로연합회 박계균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크리스토프 콩고 총무(왼쪽)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코웨이 램 탕 총무(오른쪽)

지난 5월, UBS 출판 컨벤션을 맞이하여 한국에 방문한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 크리스토프 콩고 총무와 미얀마성서공회 코웨이 램 탕 총무가 각각 후원처를 방문하여 성경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국장로회연합회(예장[통합])는 2013년 콩고민주공화국에 음반자어 첫 번역 성경 10,000부를 기증한 바 있다. 이에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 총무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성경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부탁하였다.

또한 미얀마성서공회 총무는 명성교회

(예장[통합], 김삼환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기하성], 이영훈 목사), 정동제일교회([기감], 송기성 목사), 한사랑교회([기감], 황성수 목사) 등을 방문하여 미얀마 소수민족 성경 첫 번역 지원과 기증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 교회들은 본 공회의 2011년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한 미얀마 소수민족 5개 첫 번역 지원 프로젝트를 후원해왔다. 이 교회들을 방문한 미얀마성서공회 총무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미얀마의 각 소수 민족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하였다.

‘매달 한 권의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신청인	(남, 여)	교회명	교회직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약정금액	☐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이메일주소	☐ 소식지 이메일 요청
	☐ 매월 50,000원(성경 10권)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전고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금시 1회에 한해 재출금 됩니다.)
	☐ 매월 20,000원(성경 4권)	은행명	계좌번호
	☐ 매월 10,000원(성경 2권)	예금주명	예금주 휴대전화
	☐ 매월 5,000원(성경 1권)	예금주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증 상의 생년월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매월 원(성경 권)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업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예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를 위해 동의함에 체크해주세요!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예금주: _____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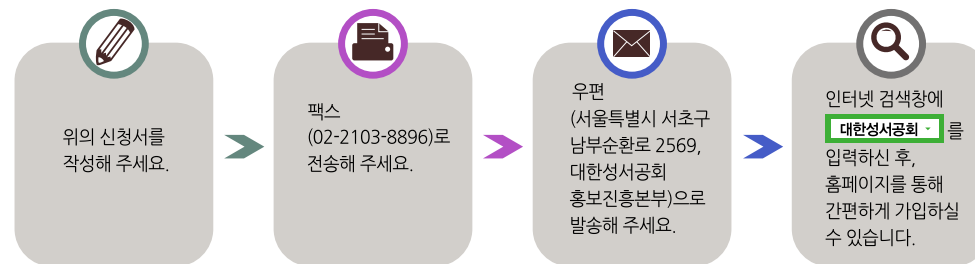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예프엠에스(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 효성예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좋아요

대한성서공회

검색

성경 지식을 활용하세요!

콩고민주공화국은 성경을 기다립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성경 한 권을 갖기가 어려워

많은 교회가 한 권의 성경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읽고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목회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 본문을 읽기 위해 먼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론 카누를 타며 먼 여행을 떠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 보내는 컨테이너 한 대에 10,000권의 성경을 실을 수 있습니다.

1만 원을 헌금하시면 2권의 성경을,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성경 20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성경 기증을 위한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우리은행 1005-702-311166

외환은행 630-008603-501

수협은행 033-01-085327

신한은행 140-009-909678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 체 국 011916-01-000076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